

# 광양시, 시민 문화거점공간 '아트컨테이너' 개관

### 마동저수지에 '중마 교역소' 5개 기업 기증한 컨테이너 3개동 전시실·문화체험실·공연 무대

광양시가 마동저수지 생태공원에 물류항만도시의 상징인 수출용 컨테이너를 활용한 이색적인 '문화교역소'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문화도시 예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문화교역소'는 광양시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들과 시민 문화를 교역하는 거점으로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와 교류 경험을 제공한다.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중마교역소'는 컨테이너 3개 동을 연결해 구성했다.

각 동은 전시실, 회의실, 문화체험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잔디마당에서는 공연, 행사 등의 야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중마교역소'를 이루는 아트컨테이너에는 다양한 가지들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공간 구성에 사용된 컨테이너는 (사)여수관광발전협의회(발전협의회) 소속 5개 기업에서 무상으로 기증한 중고 컨테이너이다.

물류산업의 역군으로 전 세계에 상품들을 실어 나르던 수출용 컨테이너가 이제는 시민문화를 실어 나르는 제2의 활용처를 찾아 재탄생한 것이다. 이는 물류교역에서 문화교역으로 역할을 바꾼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발전협의회 소속 5개 기업 외에도 추가 5개 기업에서는 컨테이너가 제대로 위치할 수 있



수출용 컨테이너를 활용한 이색적인 '문화교역소'가 마동저수지 생태공원에 등지를 들었다.

〈광양시 제공〉

도록 운반, 기반 조성, 유지관리 등에 힘을 보탰다.

중마교역소 조성을 위한 기업들의 참여는 민간 산업의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광양 조성에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의미가 깊다.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조성했다는 점이다. 광양문화도시센터는 이 공간을 이용하게 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기획하고 준비해왔다.

지난 4월에는 초등학교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시민들 105명이 모여 '내가 상상하는 아트컨테이너'

를 주제로 5회에 걸친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했다. 시민 워크숍의 결과물과 과정에 대한 기록은 1개 동에 전시돼 개관식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박시훈 광양문화도시센터장은 "광양항의 수출입물동량은 국내 1위를 자랑할 만큼 광양시는 교역의 중심지"라며 "활력 넘치는 교역의 상징물 '컨테이너'를 재화가 아닌 문화로도 채울 수 있다면 광양시민들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기업,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낸 문화교역소가 시민의 일상에 녹아들 수 있기를 바란다"

다"며 "아트컨테이너는 '중마교역소'뿐만 아니라 이동형으로도 리모델링 돼 광양의 안팎을 오고 가며 로컬 문화상품과 콘텐츠를 전파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교역소는 중마교역소 외에도 옥룡교역소(옥룡면 신재로 627), 다담교역소(이동형 컨테이너, 시라실예술촌(광양읍 사곡로 201), 인서리공원(광양읍 남문길 65) 등 총 5개소가 올해부터 운영되며, 주변 도시들과 연계해 특화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12~15일 진남관 일원서 '여수 문화재 야행' 행사 뮤지컬·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2023 여수 문화재 야행'이 '진남관, 다시 시작하는 100년(여수총쇄록Ⅱ)'이란 주제로 12일부터 15일까지 진남관 일원에서 열린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여수 문화재 야행'은 단순한 문화재 관람 형태에서 벗어나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야간시간에 여수의 특색 있는 문화재를 활용, 8야(8회)로 구분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1897년에서 1899년 사이에 초대 여수군수를 역임한 오형묵이 기록한 '여수총쇄록'을 활용해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사할 예정이다.

13일 오후 7시 30분 이순신 광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특별 뮤지컬 '12년 전 여수를 울다'와 퓨전국악 공연 등 전라좌수영을 밝히는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지며, 문화재 장소별 체험프로그램이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8야(8회)로 구분된 야행 투어는 ▲야경(夜靚)/망해루 미디어파사드 ▲야로(夜路)/유튜브 역사강사 배기성과 함께하는 역사 이야기 투어 ▲야화(夜畵)/무형문화재 각자장 전시 체험 ▲야사(夜史)/진남관·문화재 예코가방 만들기 ▲야설(夜說)/민요·기악·국악 공연 ▲야식(夜食)/시원한 수박화채 만들기 ▲야시(夜市)/내레포 장터 ▲야숙(夜宿)/여수에서 놀자 등이 이어진다.

야행 투어는 시민, 관광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투어를 완성한 관람객에게는 기념품도 지급된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고흥군 '양파 주산지 생산자 교육' 큰 호응

#### 경작 신고 방법·재배기술 교육

고흥군이 지난 9일 거금도농협에서 양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양파 주산지 생산자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양파 의무자조금 단체와 연계해 진행했다. 양파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고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양파 경작 신고 방법과 의무 자조금 납부·연계 사업, 작물 재배 기술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석한 농민들은 "농산물 재배에 필요한

생산 비용이 가중되는 가운데 가격 또한 변동이 심해 농가 운영이 힘들다"며 "보조사업 추가 지원과 의무 자조금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수시로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마늘, 양파의 가격 하락 등 농가 손해 발생에 대비해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으로 현재 55억원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는 1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경작 신고와 적정면적 재배가 양파의 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증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 순천만정원박람회, 사우디 대표단에 국제행사 노하우 전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방문단이 10일 오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찾아 안전한 국제행사 운영 비결을 배우고 있다. 이들은 정원박람회가 도입한 드론·착용형 카메라(웨어러블캠)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순천시 제공〉

### 곡성군 주방 클린업 지원사업 일반 음식점 22곳 환경 개선

곡성군은 음식문화개선사업의 하나로 일반 음식점 22곳을 대상으로 '주방 클린업 지원사업'을 벌였다고 10일 밝혔다.

주방 클린업 사업 지원을 받으면 식당에서 청소하기가 힘든 환풍기(후드)와 주방 바닥, 천장, 오염된 벽면 등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

곡성군은 올해 새로운 시책으로 이 사업을 마련하고 지난 1월부터 대상 영업주를 모집했다.

곡성지역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하고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영업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곡성군은 신청 음식점을 찾아 위생 등급과 모범 음식점 여부, 안심식당 지정요소 여부 등을 평가했다.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식당·한식당 등 총 22곳이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각 최고 100만원의 지원금을 줬다. 영업주들은 전문 청소 용역 업체에 의뢰해 식당 환경을 개선했다.

개선 뒤에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위생관리를 위한 맞춤형 주방 상담을 할 방침이다. 위생용품인 세척제와 소독제 등도 지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 순천시, 10월20일까지 남승룡마라톤대회 참가자 모집

순천시가 오는 10월20일까지 '23회 순천 남승룡마라톤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회는 오는 11월11일 팔마종합운동장 등 순천시 일원에서 열린다. 종목은 '하프'와 10km, 5km 등 3개 부분으로 나뉜다.

오는 10월20일까지 선착순 5000명의 참가자를 받을 예정이다. 참가 비용은 하프·10km 부문 3만 5000원, 5km 부문 1만5000원이다.

참가자에게는 배번호와 기록표, 안내 책자,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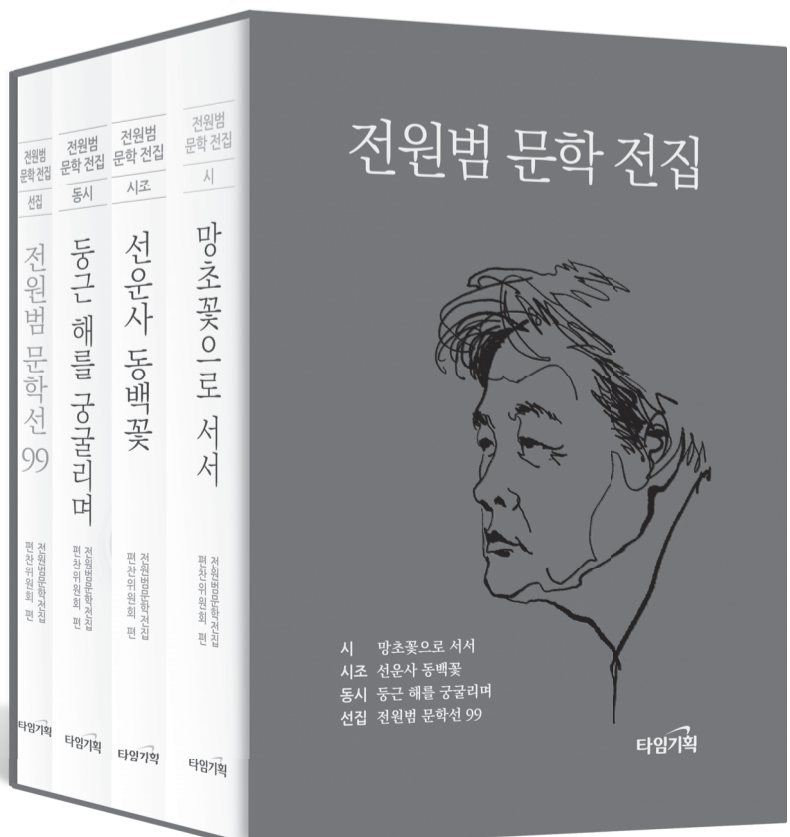
념품 등을 준다.

원주자에게는 대회 당일 메달을 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회 누리집(scmarathon.or.kr)과 순천시체육회(061-745-500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승룡마라톤대회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해 민족의 자긍심을 높인 순천 출신 고(故) 남승룡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1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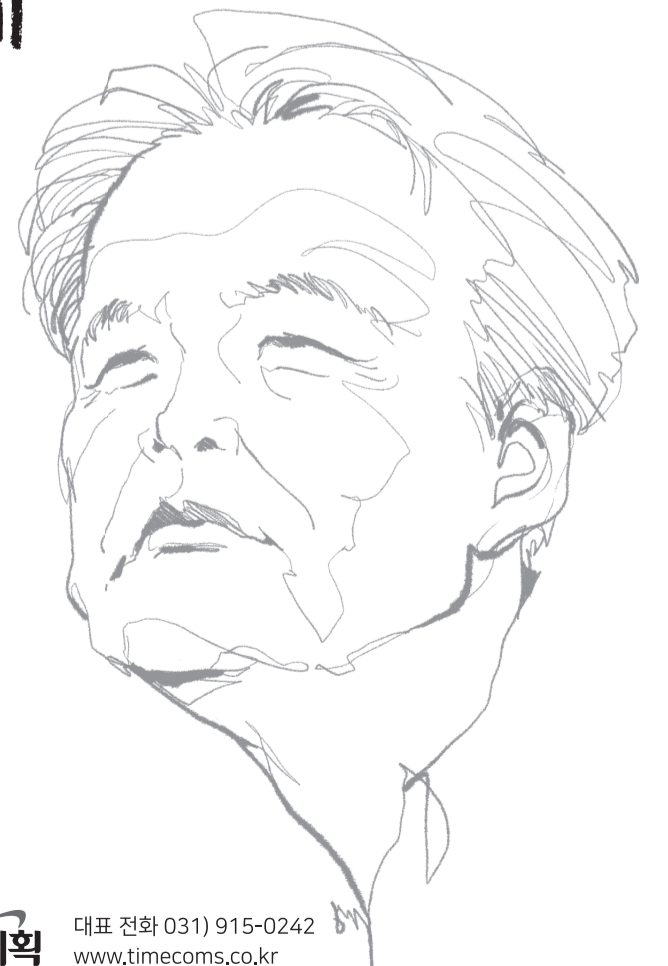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 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임창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관(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동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역문 전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